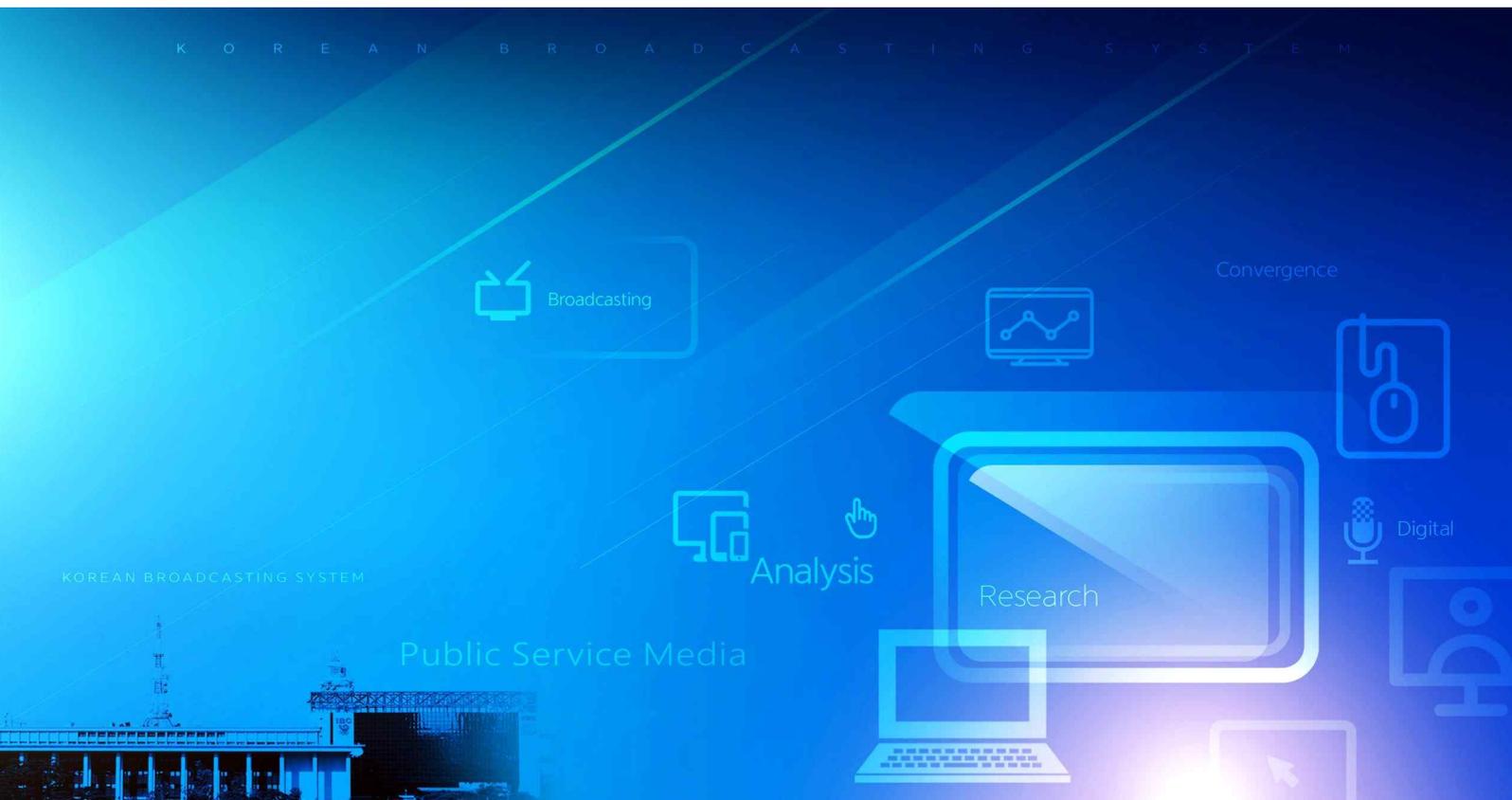




요약 보고서

2024년 국민 통일의식 조사

2024. 8. 12 |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조사팀



< 목 차 >

I. 조사 개요	1
1. 조사 개요	1
2. 응답자 특성	2
II. 주요 조사 결과	3
1. 북한에 대한 인식	3
1) 북한의 정권에 대한 호감도	3
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3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4
1)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4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4
3)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	5
4)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5
5)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복수응답)	6
6) 통일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국가	6
7)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	6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7
1)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7
2)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7
3)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7
4.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8
1)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8
2)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9
3)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10
4) 대북 교류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견	10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11
1)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	11
III. 여론조사 결과 보도 가이드라인	13

I. 조사 개요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북한 및 통일, 대북정책 등에 대한 국민 의식을 조사하여 뉴스 제작 및 통일 관련 연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2. 결과 활용	KBS1TV <뉴스9> 방송 및 통일 관련 연구 자료로 활용
3. 조사 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4. 조사 방법	[KBS국민패널]을 이용한 인터넷 설문 조사 (Internet Panel Survey)
5. 조사 기간	2024년 8월 1일(목) ~ 8월 4일(일)(4일간)
6. 표본추출 방법	주민등록통계(2024년 7월) 기준 성별, 연령대별 인구비례 할당에 따라 무작위 추출
7. 표본 크기	유효표본 1,664명
8.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서 $\pm 2.4\%p$
9. 응답률	20.5%(총 8,105건 메일 발송)
10. 조사 기관	KBS 공영미디어연구소

2.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664)	100.0
☒ 성별 ☒	남성	(828)	49.8
	여성	(836)	50.2
☒ 연령 ☒	19~29세	(249)	15.0
	30대	(252)	15.1
	40대	(298)	17.9
	50대	(333)	20.0
	60대 이상	(532)	32.0
☒ 지역 ☒	서울	(311)	18.7
	인천/경기/강원	(585)	35.2
	부산/울산/경남	(248)	14.9
	대구/경북	(160)	9.6
	대전/충청/세종	(178)	10.7
	광주/전라/제주	(182)	10.9
☒ 직업 ☒	화이트칼라	(743)	44.7
	블루칼라	(204)	12.2
	자영업	(76)	4.5
	학생	(78)	4.7
	전업주부	(234)	14.0
	농/임/어/축산업	(13)	0.8
	무직/퇴직/실업상태	(173)	10.4
	기타	(144)	8.7
☒ 가구소득 ☒	200만원 미만	(191)	11.5
	200만원~400만원 미만	(514)	30.9
	400만원~600만원 미만	(421)	25.3
	600만원~800만원 미만	(216)	13.0
	800만원 이상	(217)	13.0
	무응답	(106)	6.3
☒ 학력 ☒	고졸 이하	(299)	17.9
	대학 재학 이상	(1,365)	82.1
☒ 이산가족복합출신 여부 ☒	있음	(156)	9.4
	없음	(1,508)	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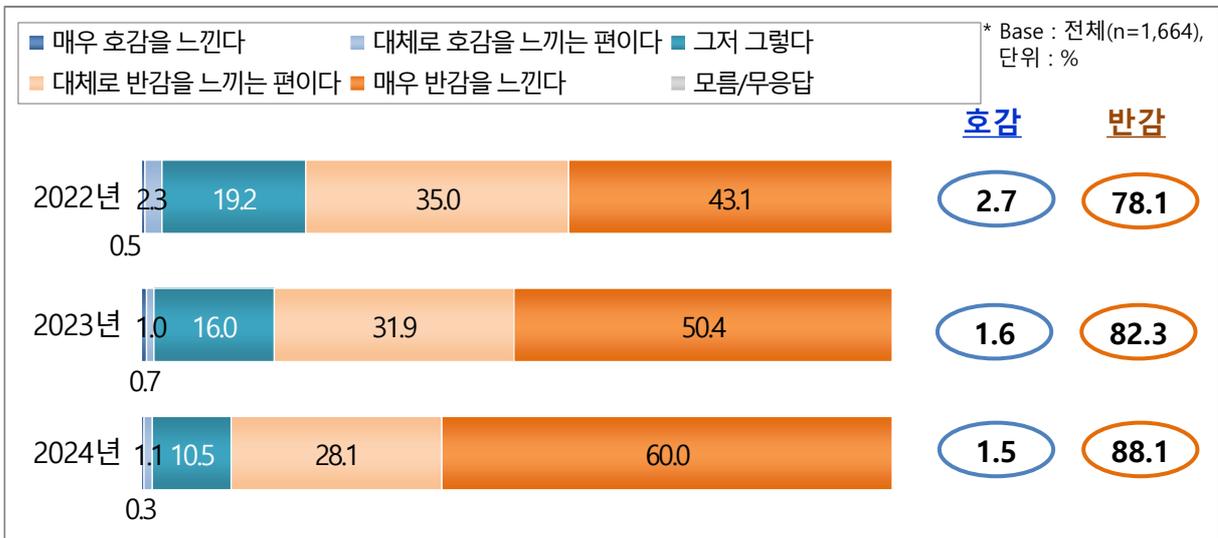
II. 주요 조사 결과

1. 북한에 대한 인식

1) 북한의 정권에 대한 호감도

문1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자는 88.1%임.
-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2022년 78.1%, 2023년 82.3%, 2024년 88.1%).
- 특히, ‘매우 반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60.0%로 2023년(50.4%)보다 9.6%p 증가 하며, 국민 10명 중 6명이 북한 김정은 정권과 집권세력에 강한 반감을 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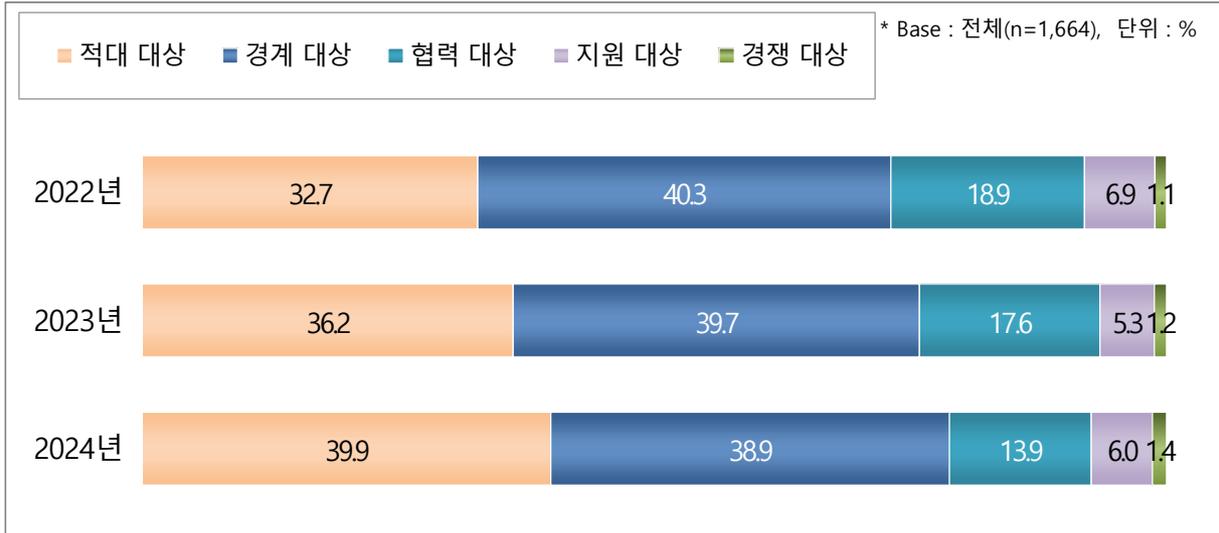


2)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2 북한은 남한에게 어떤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은 남한에게 ‘적대 대상’(39.9%)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경계 대상’(38.9%)으로 보는 의견이 높음. 전체 응답자의 78.8%가 북한을 부정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적대 대상’으로 보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2022년 32.7%, 2023년 36.2%, 2024년 39.9%) 추이를 보임.



2.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인식

1)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

문3 우리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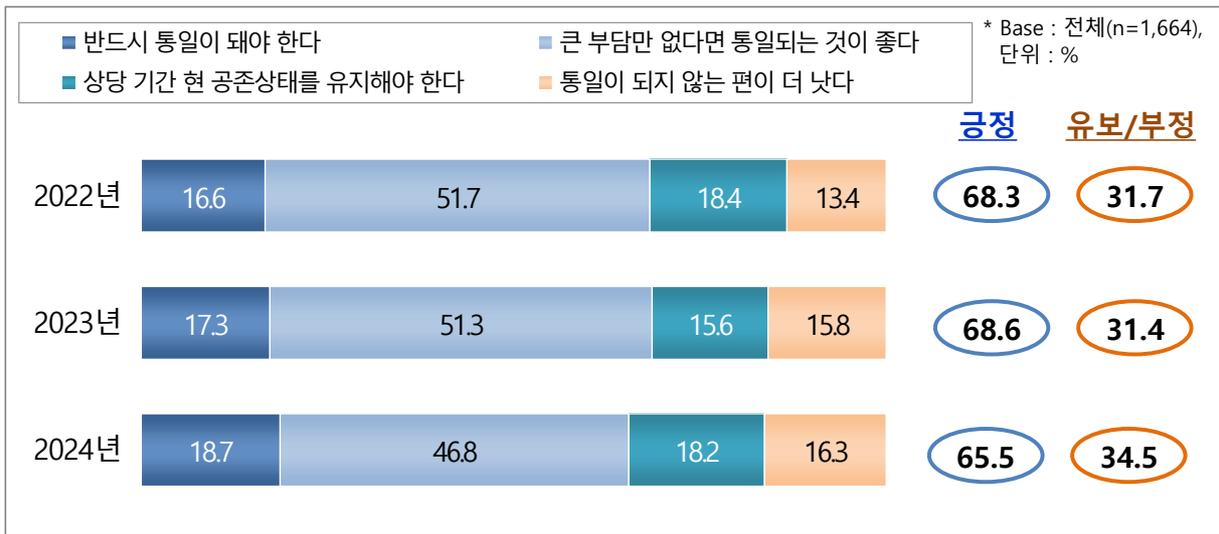
-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67.4%로, 응답자 2/3 이상은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매우 관심이 있다’: 20.1% + ‘대체로 관심이 있는 편이다’: 47.3%
- 통일에 대한 관심도는 최근 3년 동안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 2022년(68.4%) → 2023년(67.3%) → 2024년(67.4%)

2)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문4 통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통일에 대해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46.8%)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한편, ‘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18.7%)는 의견과 ‘상당 기간 현 공존상태를 유지해야 한다’(18.2%)는 의견은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하게 나타남.

-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반드시 통일이 돼야 한다’+‘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은 65.5%로, 2023년(68.6%)에 비해 -3.1%p 감소함. 특히, ‘큰 부담만 없다면 통일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6.8%로 2023년(51.3%)보다 -4.5%p 감소하며, 50% 미만으로 낮아짐.



3) 통일 시기에 대한 전망

문5 통일이 언제쯤 이뤄질 것으로 보십니까?

- 통일 시기에 대해 ‘11~20년 이내’(20.7%)와 ‘30년 이후’(19.2%)를 비슷하게 응답함. 다음으로 ‘21~30년 이내’(18.1%), ‘6~10년 이내’(10.6%) 등의 순으로 응답함.
- 통일을 ‘20년 이내’(5년 이내 2.3% + 6~10년 10.6%, 11~20년 20.7%)로 예상하는 응답은 33.5%이며, 2023년(33.2%)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37.5%, 2023년 33.2%, 2024년 33.5%)

4)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

문6 통일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 과정에서 우려되는 점으로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49.5%)을 가장 많이 응답함. 다음으로 ‘정치·군사적 혼란’(22.7%), ‘실업과 범죄 증가 등 사회적 혼란’(18.7%) 등의 순으로 응답함.

- ‘남한주민의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이라는 응답(49.5%)은 2023년(48.2%) 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여전히 최근 3년간 조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5)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복수응답)

문7 통일을 위해 남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로 ‘북한 핵문제 해결’(37.6%)을 가장 많이 응답함. 다음으로 ‘군사적 신뢰 구축(34.0%), ‘남북한 경제 교류협력’(29.8%),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24.5%), ‘남한 내부의 국론통일’(19.8%),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 방문’(19.2%) 등의 순으로 응답함.

6) 통일에 도움이 되는 관련 국가

문8 한반도 통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 대해 ‘없다’(56.4%)는 의견이 가장 높고, 응답된 국가 중에서는 ‘미국’(31.4%)을 가장 많이 응답함.
- 최근 3년간 통일에 도움이 되는 국가가 ‘없다’는 응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임.
 - ▶ 2022년 : 53.1% → 2023년 : 54.9%(+1.8%p) → 2024년 : 56.4%(+1.5%p)
- ‘미국’에 대한 인식은 최근 3년간 뚜렷한 대북 관련 정책이나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며, 오차범위 내 소폭 하락 추이를 보임.
 - ▶ 2022년 34.1% → 2023년 33.3%(-0.8%p) → 2024년 31.4%(-1.9%p)

7) 통일세 부담에 대한 의견

문9 만약 남북통일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세금 형식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연 소득의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비용을 세금 형식으로 부담할 경우 ‘연 소득의 1% 미만’(29.2%)과 ‘연 소득의 1~5% 미만’(29.0%)이 비슷하게 나타남.
- 비용에 관계없이 ‘개인 부담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은 67.7%로 2023년(68.5%) 대비 오차범위 내에서 다소 감소함(-0.8%p).

3.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

1) 북핵문제에 대한 전망

문14 향후 북핵문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북핵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73.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21.7%)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뒤를 이었음.
-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76.9%='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 73.0%+'무력으로 해결될 것' 4.0%)이 긍정적인 전망(23.1%='원만하게 해결될 것' 1.3%+'쉽지는 않지만 해결될 것' 21.7%)보다 3배 이상 많았음.
- 북핵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은 윤석열 정부 1년차인 2022년(85.5%)에 가장 높았고, 2023년(76.0%)과 2024년(76.9%)는 비슷한 것으로 조사됨.
 - ▶ 부정적인 전망(당분간 해결이 어려울 것 + 무력으로 해결될 것)
: 2022년 85.5% → 2023년 76.0% → 2024년 76.9%

2) 북핵문제의 해결방안

문15 북핵문제의 올바른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핵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35.4%)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30.0%), ‘6자회담을 통해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18.8%) 등의 순임.
- ‘남북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35.4%)는 의견은 2023년(32.8%)에 비해 다소 (2.6%p) 늘었고, ‘국제사회의 제재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30.0%)는 의견은 2023년(29.2%)과 비슷하게 나타남.

3)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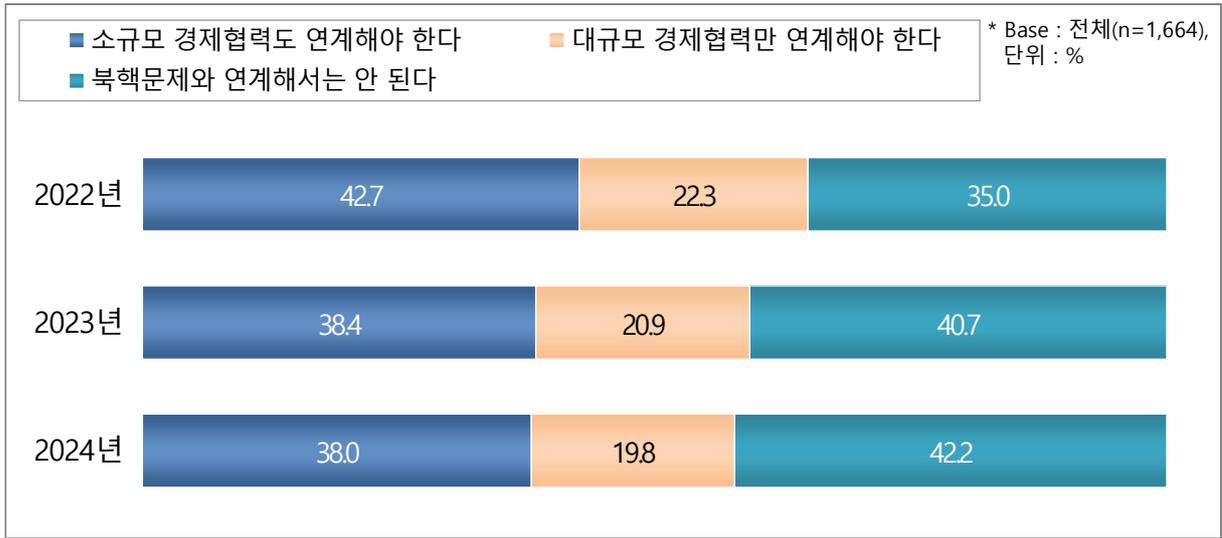
문16 향후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에 대해 ‘북핵문제와 연계해서는 안 된다’(42.2%)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경협 규모 측면에서는 ‘소규모 경제협력도 연계해야 한

다’(38.0%)는 응답이 ‘대규모 경제협력만 연계해야 한다’(19.8%)보다 큰 격차(18.2%p)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을 연계해야 한다는 응답은 최근 3년간 조사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소규모 연계+대규모 연계: 2022년 65.0% → 2023년 59.3% → 2024년 5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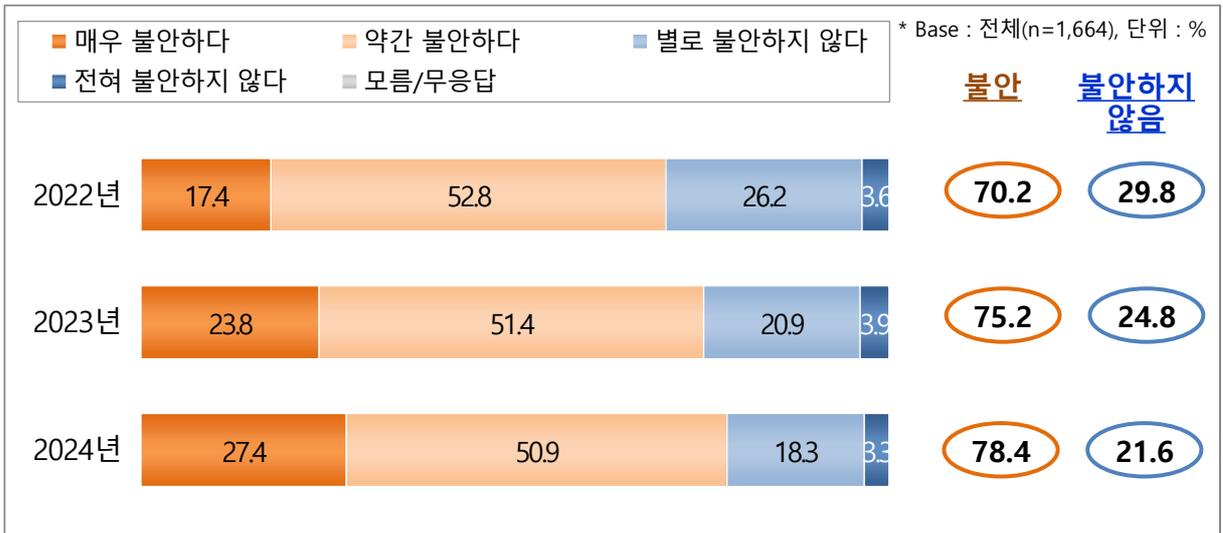


4.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1)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문20 귀하께서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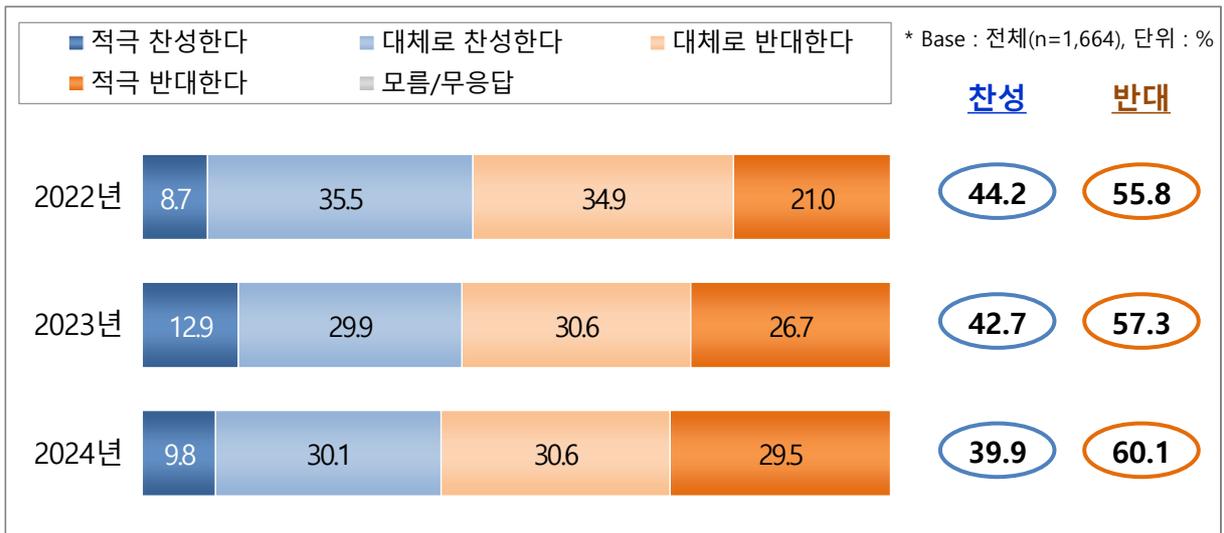
- 현재의 안보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78.4%(‘매우 불안하다’ 27.4%+‘약간 불안하다’ 50.9%)가 ‘불안하다’고 응답함.
- 안보상황이 ‘불안하다’는 의견은 2023년(75.2%)에 비해 3.2%p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보임(2022년 70.2%, 2023년 75.2%, 2024년 78.4%).



2)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찬반

문18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정부의 집권 3년차 대북정책에 대해 ‘반대’(60.1% = ‘적극 반대’ 29.5% + ‘대체로 반대’ 30.6%)가 ‘찬성’(39.9% = ‘적극 찬성’ 9.8% + ‘대체로 찬성’ 30.1%)보다 20.2%p 높음.



-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2년 55.8%, 2023년 57.3%, 2024년 60.1%).

3) 현(現)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

문19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시해야 할 대북정책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이 49.2%로 가장 많았음. 다음으로 ‘경제 교류 및 협력’(23.1%), ‘문화예술체육 등 비정치적 교류’(13.2%), ‘이산가족 상봉’(9.5%) 등의 순임.

한편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은 5.0%에 그쳐, 응답자 다수가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지양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4) 대북 교류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의견

문10 2008년 이후 금강산 관광이 중단돼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1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습니다. 향후 개성공단 사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2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은 오랫동안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대북 식량지원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13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는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조치를 취했습니다. 향후 5.24조치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강산 관광 사업, 개성공단 사업, 대(對)북한 제한적 식량지원과 관련하여 ‘조건부로 재개하거나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금강산 관광 사업’(60.1%), ‘개성공단 사업’(54.4%), ‘식량지원’(57.4%)에 있어 모두 ‘조건부로 재개/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인적·물적 교류를 중단하는 5.24조치는 유지(45.7%)해야 한다는 의견과 완화(42.8%)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에서 엇갈림.

대북교류 사업 및 정책	교류 재개/확대	조건부 재개/확대	교류 중단/폐쇄
금강산 관광 사업	즉시 재개 (14.2%)	조건부로 재개 (60.1%)	계속 중단 (25.7%)
개성공단 사업	전면적으로 재개 (16.0%)	조건부로 재개 (54.4%)	현 폐쇄상태 유지 (29.6%)
대(對) 북한 제한적 식량지원	큰 폭으로 확대 (7.8%)	조건부로 확대 (57.4%)	이전처럼 중단 (34.8%)
5-24 조치	5-24 조치 해제 (11.5%)	5-24 조치 완화 (42.8%)	5-24 조치 유지 (45.7%)

- 연도별 조사결과를 보면,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 대(對) 북한 식량의 제한적 지원을 ‘조건부로 재개/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 ▶ 금강산 관광 사업 ‘조건부로 재개’
 - 2022년: 65.3% → 2023년: 63.5%(-1.8%p) → 2024년: 60.1%(-3.4%p)
 - ▶ 개성공단 사업 ‘조건부로 재개’
 - 2022년: 57.0% → 2023년: 54.8%(-2.2%p) → 2024년: 54.4%(-0.4%p)
 - ▶ 대(對) 북한 제한적 식량지원 ‘조건부로 확대’
 - 2022년: 61.5% → 2023년: 58.9%(-2.6%p) → 2024년: 57.4%(-1.5%p)

- ‘5·24조치’와 관련해서는 2023년에 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증가(+1.1%p)했으나,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감소(-1.4%p)함.
 - ‘유지’ ≧ 2022년: 43.1% → 2023년: 44.6%(+1.5%p) → 2024년: 45.7%(+1.1%p)
 - ‘완화’ ≧ 2022년: 47.1% → 2023년: 44.2%(-2.9%p) → 2024년: 42.8%(-1.4%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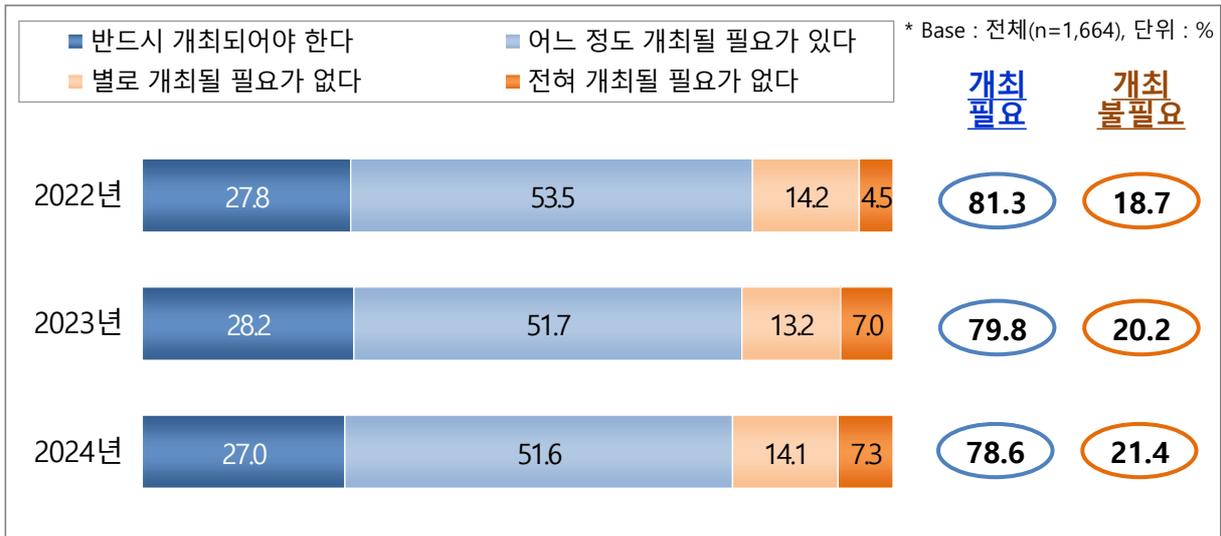
5.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의견

1)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

문17

2000년부터 2018년까지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향후 북핵문제와 남북 협력 등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북현안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될 필요가 있다’(78.6%='반드시 개최되어야 한다' 27.0%+'어느 정도 개최될 필요가 있다' 51.6%)는 응답이 ‘개최될 필요가 없다’(21.4%='별로 개최될 필요가 없다' 14.1%+'전혀 개최될 필요가 없다' 7.3%)는 응답보다 많았음.
- 연도별 조사 결과를 보면, ‘개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은 2023년(79.8%) 대비 소폭 하락(-1.2%p)하였으나, 여전히 국민 10명 중 8명 정도는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식함.
 - ▶ 2022년 : 81.3% → 2023년 : 79.8%(-1.5%p) → 2024년 : 78.6%(-1.2%p)



Ⅲ. 여론조사 결과 보도 가이드라인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의 경우,
아래 내용을 **자막 및 멘트인용** 등의 방식으로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 1) 조사대상
- 2) 조사 방법
- 3) 조사 기간
- 4) 표본추출방법
- 5) 표본의 크기
- 6) 표본 오차
- 7) 응답률
- 8) 질문내용
- 9) 조사 의뢰 기관
- 10) 조사 수행 기관
- 11)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